

문법화 연구에서의 구어의 의의*

이 성 하

한국외국어대학교

Seongha Rhee. 2008. On Theoretical Import of Spoken Language in Grammaticalization Studies.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47, 209-235. It has been widely recognized that spoken language is important for grammaticalization studies, but the specific features of spoken language in this context have not been extensively discussed. This paper describes the differential features of spoken and written languages in the context of grammaticalization studies, in four major domains of physical media, performance scene, structures, and organizations. This paper shows that the performance speed and on-line pressure for production, perceptual salience, and visibility of the addressee play major roles in grammaticalization. Furthermore, it shows that spoken language richly contains markers of dysfluency such as hesitations, repetition and pauses, from which discourse organizing materials such as discourse markers emerge in language. In addition, it illustrates that narrow lexical variation in speech contributes to frequent use of certain, semantically-general, words and constructions which consequently become increasingly exposed to semantic negotiation in discourse, a process that often leads to grammaticalization.

Key words: spoken language, grammaticalization studies, spoken vs. written language, register features

1. 들어가는 말

일찍이 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가 언어현상을 이분법적으로 대

* 이 연구는 2004년 10월 16일 건국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글학회의 558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 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학회에서 토론과 논평을 해주신 분들과 본 학술지의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리며, 남아 있는 모든 오류는 저자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별하여 본질적이고 등질적인 langue와 비본질적이고 비등질적인 parole로 구별하였다. 언어의 과학적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언어현상 중 langue에 연구 비중을 두었던 전통에 따라 (Saussure 1915), 그동안 언어학계에서는 실제 화행보다는 언어의 문법체계를 기술하려는 데에 초점을 두어 왔다. 이 이분법에 의하면 langue는 비시간적(non-temporal)이고, 구조와 추상성이 강조되며, 집단적(collective)이며 안정적(stasis)이다. 이에 대해 parole은 시간적이고, 용례와 실제사용 중심적이며, 개인적이고 가변적인 것으로서 langue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추상적인 체계로서의 문법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는 이러한 전통은 다시 1950년대 언어학적 대변혁을 일으켰던 Noam Chomsky의 분석 방법에서도 competence와 performance를 구별하고 (Chomsky 1965), 이 중 발화, 상황, 과정 등을 대표하는 performance보다는 이상화된 추상적인 완벽한 언어능력을 가리키는 competence에 연구 초점을 두으로써 언어학계에 확고한 전통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현재 언어학계의 여러 학문적 경향에서도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인간 언어에 있어서 ‘언어 사용’에 관심을 가졌던 언어철학자, 화용론자, 대화분석론자들의 연구 성과에 따라 담화의 언어학적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에는 구어 연구, 방언 연구, 구어 말뭉치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언어 사용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담화화용론은 물론 사회언어학, 문화인류언어학, 심리언어학, 코퍼스 언어학 등 인접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담화에서 일어나는 언어 변화 현상을 통해 인간의 인지적 전략과 개념적 구조를 밝혀보려는 문법화론의 발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언어이론 및 언어철학의 시대적 배경의 맥락에서 문법화 이론에서는 구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문법화가 담화층위에서 일어난다는 주장 (Hopper & Traugott 2003[1993]), 문법화에 관여하는 어원은 단순한 어휘가 아닌 문맥에 따른 통합적 구문이라는 주장 (Bybee 외 1994), 언어사용모형 (Usage-Based Model)을 통한 문법표지의 발달 및 사용양상 연구의 확대 (Bybee 1985, Langacker 1987, 1988, 2000, Barlow & Kemmer 2000, Croft 2000, Bybee & Hopper 2001, Pierrehumbert 2001)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언어 사용에서 특히 구어가 중요한 것은 그 빈도나 동력의 측면에서 매우 당연한

것이며 따라서 언어의 변화도 구어가 견인하고 있음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구어가 문법화 연구에 대해 가지는 중요성은 다만 당연한 사실로서 인정되고 있을 뿐 어떠한 측면에서 구어가 문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구어가 문법화 연구에 가지는 의의를 언어사용의 다양한 측면과 세부적인 특성을 들어가며 밝혀보고자 한다. 특히, 구어와 문어의 차이점과, 문법화 이론의 주요한 특징, 또한 문법화 이론의 특성상 문어와 대비되는 구어를 연구대상으로 삼게 될 때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말과 글의 특성

언어를 그 매체적 특징에 따라 말과 글로 분류할 때 이 두 언어형식은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각각 구어(입말)와 문어(글말)라는 장르로서의 차이를 만들어 내었는데, 여기에서는 구어와 문어 대신 편의상 말과 글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장르로서의 구어는 발화된 언어 그 자체를 가리키기보다는 흔히 글로 쓰인 구어의 문체적인 특징들을 다루기 때문이며, 둘째로, 말과 글의 차이가 구어와 문어의 차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셋째로 말과 글의 차이가 구어와 문어의 차이보다는 더 근본적이기 때문이다. 이제 말과 글의 차이를 매체물리적 특성, 현장적 특성, 구문적 특성, 구조적 특성의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

2.1 매체물리적 특성

매체물리적 특성이란 말과 글이 어떠한 구현방식, 즉 매체로 언어사용 현장에 제시되며 그러한 매체의 물리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매

1) 한 익명의 심사자는 말과 글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으로 '계획성 (plannedness)'과 '상호성 (interactiveness)'을 지적하였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며, 계획성은 본 논의에서의 수행속도, 가변성, 주제관리, 개념구조적 밀집도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상호성은 말차레, 주제관리, 유창성 등의 현장적 특성과 직시성이 관련되어 있다. 이는 전적으로 분류상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체물리적 특성에 있어서 말과 글의 차이는 그 수행속도, 보존성, 가변성, 표상 단위 등의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2.1.1 수행속도

말과 글은 그 언어사용 행위의 수행속도 (performance speed)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드러낸다. 이러한 차이는 이후에 논의하게 될 여러 가지 차이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그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말은 언어의 수행, 즉 발화 행위가 생물학적인 발화장치를 통해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발화를 위한 메시지를 개념화하고, 이 개념화된 내용을 언어적 상징으로 변환하여 입력자료를 만들고, 이 언어적으로 변환된 입력자료를 발화하고, 자신의 발화를 모니터하는 일련의 발화절차는 그 계획과 수행이 모두 자동화된 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발화의 진행 속도도 매우 빠르다. 심리언어학적 연구를 통해 보면 발화나 발화에 대한 처리 (해석)는 매우 신속하여 다른 인지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와 비교할 수 없이 빠르기 때문에 언어처리를 위한 별도의 모듈이 두뇌에 있음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해 글은 그 수행에 있어서 속도가 매우 느리며 언어적 수행, 즉 쓰기 행위가 스스로의 통제를 통해 대부분 시간적 제약이 없이 이루어진다. 물론 계획성과 쓰기 매체의 특성에 따라 속도가 조절되기도 하고 말의 특징에 근접하기도 하지만 말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그 수행속도가 느리다.

2.1.2 보존성

말과 글은 보존성 (durability)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보존성이란 수행된 행위가 시간적으로 발화 현장으로부터 이탈하여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언어사용행위가 유지되는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말은 말하는 이에게나 듣는 이에게 있어서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보존된다. 심리언어학적 측면에서 보면 음성언어가 청각장치에 머무르는 시간은 약 4초 정도 되며 그 후에는 단기기억장치로 옮겨가는데 이미 이 단기기억장치로 옮겨 갈 때부터 정보의 편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언어자료와는 다른 구조로 머무르게 되고, 더 나아가 장기 기억장치로 이전될 때에는 극히 일부분의

정보만이 듣는 이의 인지적인 패턴에 따라 다른 형태로 저장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단명한 말의 특징과는 대조적으로 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보존매체들이 종이나 전자기록 공간 등과 같은 매체에 잉크나 전자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생성되기 때문에 장기보존 가능한 것들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장기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하다.

2.1.3 가변성

말과 글은 가변성 (modifiability)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변성이란 언어사용행위를 통해 산출된 언어자료에 대해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수정의 성격을 정의하기에 따라 차이점의 정도가 차이가 있으나 근본적으로 말과 글의 두 수행형식이 큰 차이를 보인다.

일단 수행이 이루어져 발화를 하거나 글을 쓴 이후에 그 수행물에 대한 계획적 수정은 말의 경우 전혀 불가능하지만 글의 경우에는 거의 항상 가능하다. 말의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수정하려 할 때 이 수정 행위가 이전 발화에 대한 추가 행위로만 이루어질 뿐 이전 발화 자체의 수정은 불가능하다.²⁾ 글의 경우에는 항상 그 내용을 고칠 수 있으므로 가변성이 매우 크다.

2.1.4 표상단위

말과 글의 현저한 차이 중 하나는 표상단위 (representational unit)이다. 표상 단위는 언어수행 행위의 산출물이 어떠한 단위로 표시되는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단위는 학술적인 개념의 단위로서 언어형식이 가지는 추상화의 측면에서의 일종의 표상 층위를 말하는 것이다.

말은 그 표상 단위가 음성적인 음운이다. 음운은 추상화되어 있어서 심리언어학적으로 검색과 호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단위이지만 실제 발화에 있어서는 음성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강세, 억양, 음률의 고저 등 다양한 초분절자질

2) 물론 익명의 심사자의 지적과 같이 말에서도 자기수정 (self-correction)은 가능하다. 이전 발화 자체의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생산된 언어 수행물 자체를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만 정보적 차원에서의 수정이 가능할 뿐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기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전의 발화내용이 지속적으로 대화당사자들 사이에 영향을 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수정'의 개념 정의와 그 범위, 수행효과 등은 전적으로 개념화의 문제이다.

(suprasegmentals)이 항상 나타나며 이 초분절자질들은 발화할 때마다 매우 불규칙하며 따라서 음성학적 안정성이 매우 낮다. 또한 초분절자질들의 표상은 의미적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초분절자질의 유동성은 매우 유의미성이 큰 것이나 실제로 안정성이 매우 낮아 연구대상으로 삼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구어의 표상단위의 불안정성에 비해 철자로 표현되는 글은 개념적 대응관계를 갖는 표의문자나, 음절적 대응관계를 갖는 음절문자나, 음소적 대응관계를 갖는 알파벳 문자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초분절 자질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가변성이 없으며 음성학적으로 안정적이다. 표상단위 상의 안정성은 언어의 변화에 저항하여 언어를 항상적 체계로서 유지시켜주는 장점이 있으나 언어의 혁신적 변화에는 기여하지 않되, 일단 언어변화가 언어집단 내에서 사용되고 문어적으로 기록되고 나면 변화가 더 안정화되고 고착화될 수 있게 하는 데에 기여한다.

2.2 현장적 특성

말과 글이 차이점을 보이는 또 다른 영역은 현장적 특성이다. 현장적 특성이란 언어수행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 또는 물리적 환경에 따른 차이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러한 차이점 또한 다음 장에서 논의하게 될 문법화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들이 있다. 말과 글을 현장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말차례, 주제관리, 유창성의 세 가지 면에서 그 차이점을 들 수 있다.³⁾

2.2.1 말차례

말은 글과 달리 주로 대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화순서교대(turn-taking)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말차례가 겹치는 예가 많이 나타난다. 말차례 겹침은 때로는 공격성의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순서 적정교대지점을 잘 파악하지 못해 생겨나는 예도 많고 때로는 상대방의 발화 완성에 참여하려는 협조적 의도에 의한 경우도 있다 (김규현 2000). 또한 말차례가 자주 반복

3) 한 익명의 심사자의 의견과 같이, 추후 2.4.4에서 논의하게 될 '직시성(deixis)'은 중요한 현장적 특성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다만 논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직시성에 관한 논의는 다루지 않았다.

되어 발화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환류(feedback)가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말이 가지는 이 같은 특성에 비해 글에서는 대화 상황이 아니라 일방적인 쓰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말차례 겹침 현상이 거의 없고 또한 읽는 이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환류 속도가 늦거나 환류 현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다.

2.2.2 주제 관리

언어 행위에 있어서는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이 상호작용은 특정한 주제를 공유하는 담화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수의 담화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제를 선택하고 주제를 유지하고 주제를 끝내거나 바꾸는 행위, 즉 주제관리(topic maintenance)가 중요하다.

말에 있어서는 주제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나고 다음 주제로의 전환, 즉 주제 분절이 선명하지 않다. 이러한 주제이탈 행위는 이미 만들어진 대화행위의 산출물이 음성정보의 형태를 띠고 있어 쉽게 사라지기 때문이며 따라서 특별한 노력으로 주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새로 떠오르는 주제로 쉽게 이탈하게 되거나 아니면 현재 주제의 큰 흐름이 아닌 세부 주제로 쉽게 분기하게 된다.

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유동성에 비해 글에서는 대부분 주제를 이탈하는 현상이 거의 없고, 주제 분절은 대부분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하기 때문에 분절이 선명하다. 이러한 분절의 선명성은 주제별로 나누어진 단락 내의 일관성을 높여주며 따라서 내용적 측면에서도 인지적으로 복잡한 주제를 다루거나 통사적으로 복잡한 구조로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2.2.3 유창성

말과 글의 차이점은 유창성(flucy)에서도 잘 드러난다. 유창성은 자신의 생각의 흐름을 부자연스러운 단절이나 불필요한 단어나 구의 삽입 없이 일관되고 신속하게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유창성의 측면에서 보면, 말은 시간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통상 비

유창성 표지라 할 수 있는 발화상의 멈춤 현상이나 머뭇거림, 또한 채움말 (filler) 사용 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즉 발화자가 자신의 발화속도에 맞추어 어휘선택이나 구문선택 등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생겨나는 경우들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간적인 제약이 거의 따르지 않는 글에서는 이러한 비유창성 자질들이 나타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이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만 여백이나 줄임표 또는 채움말을 이용하여 표시한다. 즉 비유창성 표지를 사용할 만한 물리적 제약이 없으므로 비유창성 표지의 사용 자체가 별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2.3 구문적 특성

말과 글은 그 내용이 되는 언어형식의 구문적인 특징에 있어서도 매우 현저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구문적 특성은 수행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언어자료가 가지는 통사적, 의미적 층위의 특징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러 가지 구문적 특징에서도 일부의 특징은 문법화 연구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구문적 특성의 관점에서 말과 글을 비교해 보면 단위접속, 투명성, 구문적 완전성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2.3.1 단위접속

말이나 글의 내용이 되는 언어형식은 단어나 구, 절, 단일 문장의 범위를 넘어서서 대개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담화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접속 (connection) 장치를 사용하게 된다.

말은 생각의 단위라 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절과 같은 구문단위들을 접속하는 데 있어서 주로 단순 접속을 사용하여 때로는 문장이 매우 길고 이 문장 또는 구절 간의 논리적인 연결은 상황이나 문맥에 의존하는 예가 많다. 이와 대조적으로 글에서는 생각의 단위들을 문장 단위로 정확하게 분절하고 논리 접속표지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2.3.2 투명성

언어사용에 있어서 모든 발화행위 또는 기록행위는 의미의 전달을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갖고 있다. 따라서 언어형식의 의미는 담화참여자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발화자나 기록자로서는 가장 명료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요소이다. 그러나 언어사용자가 항상 명료성만을 추구하지는 않으며 편의성을 동시에 추구하는데 편의성은 명료성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명료성은 상대방의 이해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이른바 상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해를 모니터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측면에서 말과 글이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언어형식 그 자체의 투명성 (explicitness)이 이 두 가지 언어사용 양상에 있어 큰 차이점을 보인다.

다시 말해, 말에서는 듣는 이의 존재와 그의 주의집중이 전제되기 때문에 해석적 중의성이 있는 대명사를 사용하거나 불투명 지시표현들을 자주 사용한다. 투명성이 적은 표현들도 상황적으로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낮은 투명성은 실제 대화에 방해요소가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글에서는 지시가 투명하고 대명사 대신 명사 지시표현을 사용하는 등 투명성이 높다.

2.3.3 구문적 완전성

구문적 완전성 (syntactic completeness) 또한 말과 글이 큰 차이점을 보이는 변항이라 할 수 있다. 즉 모든 언어수행 형식이 완전성을 띠지는 않는데 그 완전성의 정도가 말과 글에서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이다. 구문적 완전성은 의미의 명료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구문이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의미적인 명료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상황에 따라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면 구문이 불완전한 경우에도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말을 함에 있어서는 발화된 언어형식이 문장 단위로 구문적 완전성을 갖추지 못하는 예가 많다. 이는 앞의 지적에서와 같이 상황에 따라 이해가 담보된 경우에는 발화자가 구태여 많은 노력을 들여가며 구문적으로 완전한 발화를 생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글에서는 모든 표현이 대부분 문장 단위로 구문적 완전성이 높으며, 구문적으로 불완전함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줄임표를 사용하기도 한다. 즉 구문적으로 불완전한 언어형식을 생산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의도적으로 불완전한 언어형식을 생산한다면 이러한 의도 자체가 담화 화용적인 의

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2.4 구조적 특성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과 글의 대조 영역은 구조적 특성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구문적 특성과 관련이 있지만 구문적 특성이 언어형식 그 자체에 있어서의 형식적 특징인데 반해 구조적 특성은 언어형식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 자체에 있어서의 특징이다. 이 영역에는 문법성, 어휘와 문법, 개념구조적 밀집도, 직시성, 주변언어 등이 주요한 변항들이다.

2.4.1 문법성

모든 수행행위의 산출물은 그 해당언어의 규범에 충실한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발화나 기록물로 이루어진 언어수행 결과는 문법적으로 정확하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문법적 정확성 (grammaticality)의 유동성은 문법의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하게 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말과 글은 수행속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말과 글이 그 수행속도에 있어서 보이는 현저한 차이는 곧 발화한 말이나 쓴 글의 정확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말의 경우에는 그 수행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하는 이의 심리상태, 건강상태, 단기기억, 발화장치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머릿속에서 계획된 발화와는 다른 발화가 이루어져 많은 발화실수들이 일어나고, 따라서 문법 규칙에 대해 부정확한 발화가 많이 나타난다. 이에 반해 글에서는 그 수행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쓰는 이의 문법적인 지식을 적용하여 천천히 글을 적을 수 있고 또 이미 쓰여진 글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문법 규칙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다.

2.4.2 어휘와 어법

언어형식은 어휘와 어법 (diction and style)에 따라 분명한 특징을 가지게 된다. 어휘와 어법의 면에서는 난이도, 다양성, 방언적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특징을 갖게 된다. 이러한 특징 또한 언어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말에서는 사용되는 어휘의 다양성이 낮고 쉬운 어휘, 지역방언, 계층방언, 연

령방언, 개인방언 등의 어휘 또는 어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문법표지의 사용도 비교적 다양하지 못하다. 이에 비해 글에서는 사용되는 어휘의 다양성이 높고 어려운 어휘, 그리고 통상 ‘표준어’로 인정되는 단어 또는 어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법표지의 사용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말에서 사용되는 어휘나 어법은 빈도상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데 비해 글에서 사용되는 어휘나 어법은 이러한 빈도상의 차이가 말에서의 경우처럼 현격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2.4.3 개념구조적 밀집도

언어수행 행위의 산출물인 언어형식은 그 전체적인 구조상 개념적 밀집도 (conceptual density)를 중요한 변수로 갖고 있다.⁴⁾ 개념적 밀집도가 높을수록 해당 언어형식은 이해하기가 힘들며, 이러한 밀집도를 낮추는 방식은 속도를 늦추거나 쉬운 어휘를 사용하거나 이미 발화/기록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이 개념구조적 밀집도는 말과 글이 매우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말은 그 내용에 있어서 겹침 현상이라 할 수 있는 발화중복 (redundancy)이 자주 나타나며 실제로 이러한 발화중복은 속도감이 높은 말의 사용 현장에서 듣는 이로 하여금 말하는 이의 뜻을 이해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개념구조적 밀집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글은 시간적 제약이 적어 발화중복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따라서 개념구조적 밀집도는 상대적으로 높다.

2.4.4 직시성

언어형식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인 언어형식과 주관적인 언어형식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으며 주관적인 언어형식은 직시성 (deixis)이 높게 나타난다. 직시성을 표현하는 직시소들의 특징은 ‘여기/저기, 어제/오늘/, 나/너, 위/아래, here/there, now/then, I/you, on/below’ 등과 같이 기준점이 설정되어야만 그

4) 한 익명의 심사자는 ‘개념구조적 밀집도’라는 개념이 선명하지 않으며 ‘구조적 밀집도’라는 개념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였는데 적절한 제안이다. 그러나 이처럼 ‘구조적 밀집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단순히 발화내용의 문법구조적 복잡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어, 필자가 의도한 대로, 개념적으로 복잡한 내용을 형태통사적으로 발현해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밀집도를 지칭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개념구조적 밀집도’라는 용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지시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어수행자 즉 말을 하는 이나 글을 쓰는 이는 상대방이 기준점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에 따라 직시소를 사용하는 빈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

말에서는 듣는 이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이가 직시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이에 비해 글에서는 읽는 이의 상황이 일반화될 수 없으므로 직시적인 표현이 상대적으로 적고 글 쓰는 이의 감정적인 표현, 또는 감탄사 등도 대개는 억제된 형태로 나타난다.

2.4.5 주변언어

산출물로서의 언어형식인 말과 글은 앞서 지적한 현장성의 차이에 따라 주변언어의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주변언어 (paralanguage)는 몸짓 (신체언어학; kinesics), 대화자간의 거리 (근접 공간학; proxemics), 시선 (eye contact), 소지품 (복장 또는 장신구), 신체접촉 (감각학; kinesthetics), 후각 자극 (향수사용 등) 다양한 요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언어를 사용한 의미형성과 의미파악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는 부수적인 언어수행 행위이며, 언어사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화용적으로뿐만 아니라 제2언어학습과 대화분석, 담화분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Kellerman 1992).

이 주변언어에 있어서 말과 글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말은 발화시에 반드시 몸짓과 대화자간 거리, 시선 등 다양한 주변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주변언어가 발화내용보다 더 중요한 의미지시 단서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에서는 음성언어에 의한 의미전달이 30-35% 정도이지만 동작언어에 의한 의미전달은 65-70%에 이른다는 Birdwhistell (1952, 구현정 2001:36에서 재인용)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글에서는 이러한 주변언어가 나타나지 않으며 글 쓰는 이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설 (authorial remarks)로 표시하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2장에서의 논의를 정리해 말과 글의 차이를 도표화하면 다음 <표1>과 같다.

가변요소		말	글
매체 물리적 특성	수행속도 (performance speed)	빠르게 진행됨	느리게 진행됨

	보존성 (durability)	순간적으로 소멸됨	거의 영구적으로 보존됨
	가변성 (modifiability)	계획적 수정이 불가능함	계획적 수정이 가능함
	표상 단위 (representational unit)	음성적 음운으로 표현되어 음성학적 안정성이 낮음	철자로 표현되어 음성학적 안정성이 높음
현장적 특성	말차례 (turn-taking)	말차례 중복이 자주 발생하며 환류가 빠름	말차례 중복이 발생하지 않으며 환류가 없거나 느림
	주제 관리 (topic maintenance)	주제를 자주 이탈하며 분절이 선명하지 않음	주제를 이탈하지 않으며 문단으로 분절하여 분절이 선명함
	유창성 (fluency)	멈춤, 머뭇거림 현상이 많고 채움말이 많이 나타남	멈춤, 머뭇거림 현상이 없고 채움말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구문적 특성	접속 (connection)	단순접속을 빈번히 사용함	문장단위로 분절하고 논리접속을 빈번히 사용함
	투명성 (explicitness)	대명사 등 불투명 지시표현을 자주 사용함	지시가 투명하고 명사 지시표현을 자주 사용함
	구문적 완전성 (syntactic completeness)	자주 불완전함	거의 항상 완전함
구조적 특성	문법성 (grammaticality)	오류가 자주 발생함	오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어휘와 어법 (diction & style)	다양성이 낮고, 쉬운 어휘, 방언어휘를 많이 사용함	다양성이 크고, 어려운 어휘, '표준'어휘를 많이 사용함
	개념구조적 밀집도 (conceptual density)	밀집도가 낮음	밀집도가 높음
	직시성 (deixis)	직시적이고 감정적 표현이 많음	직시성이고 감정적인 표현이 적음
	주변언어 (paralanguage)	항상 사용함	표기하지 않거나, 해설로 표시함

<표1> 언어의 형식과 특성

3. 문법화론과 구어

앞선 장에서 구어, 특히 말의 특징을 글의 특징과 대조하여 살펴보았다. 이 말의 특징은 문법화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문법화의 정의와 특징, 언어층위와 문법화의 분석대상에 대해 기술하고, 문법화 이론에서의 구어의 중요성을 앞서 살펴본 매체물리적, 현장적, 구문적, 구조적 특성의 측면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3.1 문법화의 정의 및 특징

문법화란 어휘적인 의미를 갖추고 있는 언어형태가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형태로 변화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존재동사인 ‘있다/있다/이시다’ 등의 어휘적인 단어가 문법적인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었-’으로 변화한 현상이라든가, 영어의 *sceal* ‘빚지다’라는 동사가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shall*로 변화한 현상은 문법화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완전히 어휘적인 항목이 완전히 문법적인 항목으로 변화한 경우 이외에도 변화의 방향이 더 어휘적인 것에서 덜 어휘적인 것으로 (즉 덜 문법적인 것에서 더 문법적인 것으로) 변화한 경우들도 모두 문법화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다.⁵⁾ 학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법화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문법화란 한 형태소가 어휘적 지위에서 문법적 지위로, 혹은 파생형에서 굴절형으로의 변화처럼 덜 문법적인 것에서 더 문법적인 것으로, 문법성의 정도가 증가되는 현상이다. (Kuryłowicz 1975[1965]: 52)

또한 이론틀로서의 문법화론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Heine 외. (1991), Heine (1997), Hopper and Traugott (2003[1993]), 이성하 (2006[1998]) 등 여러 문법화 논저에서 중요하게 지적되는 특징으로서 본 논의와 관련이 있는 특징들을 들면 대략 다음과 같다.

5) 이러한 예로는 파생형태소가 굴절형태소로 바뀐 현상을 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영어의 *-ing* (Panagl 1987), Swahili어의 *ku-* (Lindfors 2003) 등을 들 수 있다.

- (2) 가. 범시성: 언어에 있어서 공시와 통시의 구별은 관점에 의한 인위적인 산물이 지 사실상 공시와 통시는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언어는 역사의 산물이므로 통시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언어의 참구조를 이해하려면 통시적인 변화와 공시적인 변이를 모두 포괄하는 범시적 접근법을 가져야 한다.
- 나. 기능성: 언어는 단순한 언어형식 자체의 관점보다는 그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따라서 언어는 의사소통체계라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한다. 언어는 의사소통과정을 가능하게 하고 그 체계는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다.
- 다. 유동성: 언어형태는 하나의 형태가 하나의 기능 혹은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의미가 하나의 언어형태로 표시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하나의 언어형태도 공시적으로 많은 변이형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언어란 폐쇄적인 고정된 체계가 아니라 늘 열려 있고 변화하고 있으므로 고정된 문법이란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문법화론은 언어형식의 문법성이 증가하는 통시적 현상을 범시적으로 분석하며 특히 언어의 기능적 요소와 문법의 유동성에 주목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3.2 언어층위와 문법화의 분석 대상

문법화 현상은, 형태, 의미, 기능, 구조 등의 거시적인 모든 층위에서도 일어나고, 많은 경우 각 층위에서의 변화현상은 다른 층위에서의 변화현상과 동반하여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변화현상을 하나씩 독립시켜서 논의하는 것은 흔히 다른 수반현상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수반현상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변화의 동력을 제공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성하, 2006[1998]).

그러나 연구현장에서는 모든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방법론적으로 부득이 독립된 분석적 질문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문법화 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특정한 언어현상이 문법화 현상으로 볼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형태, 의미, 기능, 구조의 측면에서 다음 <표2>와 같은 분석적 질문을 사용한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성/음운적 소실이 있는가? 담화적 형태에서 통사적 형태로, 통사적 형태에서 형태론적 형태로, 형태론적 형태에서 음운적 형태로 변화하는가? 형태상의 변화에 범언어적인 방향성이 있는가?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 의미에서 추상적 의미로의 변화가 있는가? 의미가 탈색되어 일반화되는가? 어원어의 의미가 문법소의 의미와 발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의미상의 변화에 범언어적인 방향성이 있는가?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차적 범주에서 이차적 범주로의 기능적 이동이 있는가? 어휘적 기능이 감소되고 문법적 기능이 증가되는가? 어휘항목에서 어휘성이 유지되는 형태와, 새로이 문법성을 띠는 형태가 분화되는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형태들 사이에 기능적 분업 또는 전문화 현상이 있는가? 기능상의 변화에 범언어적인 방향성이 있는가?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열성이 증대되어 계열화현상을 보이는가? 언어형태의 사용상 계열적 유동성이 감소되어 사용이 의무화되는가? 언어형태의 사용상 통합적 유동성이 감소되어 위치가 고정되는가? 언어형태들 간의 결합성이 증대되어 구조적 합류가 일어나는가? 구조상의 변화에 범언어적인 방향성이 있는가?

<표2> 문법화의 언어층위별 분석질문

3.3. 문법화 이론에서의 구어의 의의

위에서 살펴본 문법화의 이론적 특징과 연구 관점을 입말의 특성과 비교하여 볼 수 있다. 특히 입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했던 네 가지 영역, 즉 매체물리적 특성, 현장적 특성, 구문적 특성, 구조적 특성의 네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3.3.1 매체물리적 특성

언어의 변화가 글보다는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 사이에 공감을 얻고 있다 (Hopper & Traugott 2003[1993]). 그러나 말을 통한 언

어의 변화는 매우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언어사용자들이 변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 다만 시간이 지난 후에 회고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뿐이며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은 단어의 의미나 기능의 변화에 대한 분석적인 깨달음이 가능할 뿐 음성/음운의 변화에 대하여는 그 인식이 더욱 어렵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말이 가지는 매체적 특징 중에서 그 표상단위가 음성적인 음운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며 말이 가지는 가변성이 미시구조상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가변성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말의 음운적 자질들은 그대로 보존되기가 어려워서 연구대상으로 삼기가 어렵다. 대부분 말은 기록을 통한 말, 즉 글로 만들어진 말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때 글이 가지는 매체적 특징, 즉 철자로 표시되어 음성학적 높은 안정성을 가진다는 특징 때문에 변화의 역동성이 상실되게 된다. 따라서 말 자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한 철자적 표기, 즉 음소중심의 표기보다 더 섬세하고 정교한 태깅이 필요할 것이다. 문법화가 일어나고 있는 조짐은 대개의 경우 음소로 표시할 수 없는 영역, 즉 초분절 자질에서 자주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말에서는 음성/음운적 소실이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음성/음운적 소실은 의사소통상 중요한 부분이 강조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일어나는 일로서, 상대적으로 약화된 음성/음운적 정보는 현저성이 떨어져 듣는 이로부터 재분석의 대상이 되거나 의미협상에서 더욱 심한 변화를 겪게 된다. 예를 들어 [on the top of NP]의 구조로부터 [on top of NP], 다시 [atop NP]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초기발화에서 NP가 강조되고 [on the top of]가 음운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음운적 환경은 글이 아니라 말에 의해 견인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문법화는 통상 개념적인 변화가 생긴 후 형태적인 변화가 이를 뒤따르는 특징이 있는데 (Heine 1994), 이 때 개념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말의 통합관계 (syntagma)의 구조를 기존의 구조와 다르게 심리적으로 분석하는 이른바 재분석 (reanalysis)이 있다. 이 재분석은 많은 경우 문자열로 쓰인 글의 경우보다는 음성적으로 표시되는 말에서 더 두드러지게 잘 나타난다. 이는 음성적인 정보에 있어서 특정 항목에 대한 음성적 정보가 그 해당 항목의 현저성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여 실제로 재분석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어의 *be going to*가 *go*를 핵심

동사로 하는 현재진행형 표지로부터 미래시제 표지로 바뀌도록 유발한 데에는 *going*이 음운적으로 약화되고 *be going to* 전체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하나의 단위처럼 인식되게 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있었음은 후에 *be gonna*와 같이 음운적으로 축소되고 어휘적인 경계가 없어져 버린 현상에서도 잘 알 수 있다.⁶⁾ 이러한 현상은 음성적으로 표시되는 말의 표현 양상에 주목하지 않으면 감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3.3.2 현장적 특성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담화 상황, 즉 ‘말 주고받기’가 언어분석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특히 1970년대 중반부터 담화가 언어의 구조와 문법범주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항임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Givón (1979a,b)에서는, 인간의 언어는 담화의 문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통사를 갱신한다고 하여 ‘오늘의 형태론은 어제의 통사론, 오늘의 통사론은 어제의 담화론’이라는 주장을 폈다. Hopper (1979)에서도 Nupe, Gwari, Malay어 등에서 보이는 초점표지와 완료상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언어의 시제나 상, 기타 유사한 문법표지들이 담화의 구조로부터 발전하게 됨을 보였다. 또한 Lehmann (1995[1982])에서는 담화가 통사를 만든다고도 지적하였고, Lichtenberk (1991:76)는 담화와 문법의 상호작용을 중시하여, 문법은 담화에 형태를 부여하고 담화는 문법에 형태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많은 아프리카 언어들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Heine 외 (1991: 238)은 계량적 연구들을 통해 담화 화용이 통사적 요소들 대부분을 제공한다고도 하였다.

이처럼 글보다는 말이 문법화에 중요한 이유는 말이 가지는 현장적 특성 때문이다. 말은 글과 달리 그 선택되는 언어형식, 즉 단어 사용에 있어서 소수의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른바 어휘적 빈도편중 현상이 있다. 문법화에서는 언어의 모든 형식, 즉 모든 단어나 구문들이 문법화하는 것이 아니며 소수의 항목만 문법화되는데 이 소수항목들은 빈도가 매우 높고 의미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것이라는 사실이 범언어적으로 범시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바로

⁶⁾ 이처럼 음운적으로 축소되어 *be gonna*와 같이 원형이 보존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의 기록물에서는 원형으로 환원된 *be going to*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은 말의 진보성과 글의 보수성을 잘 대변해 준다.

이 고빈도 항목들은 담화에서 의미협상의 주요 대상이 되고 이러한 의미협상 속에서 개념적 변화와 형태적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협상의 관점에서 볼 때, 언어의 변화는 미시구조 상에서 의미와 형태가 매우 미세한 분량만큼씩 변할 뿐이며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것은 대화하는 양방 사이에 존재하는 편의성과 명확성이라는 두 가지 상보적인 원칙 하에서, 말하는 이는 의미를 함축하고 듣는 이는 의미를 추론하기 때문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입말에서는 멈춤이나 머뭇거림, 또한 채움말 사용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기능적으로 볼 때 담화표지어들은, 주제의 제시, 유지, 교체 등 담화를 구조화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범주를 이루는데 이러한 담화표지어들은 말의 사용에 있어서 채움말을 통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글을 통해서 담화표지어의 발달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

3.3.3 구문적 특성

말은 많은 경우 구문적으로 불완전한 형식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성은 실제대화의 전사자료 등에서 뚜렷이 나타나는데 실제대화에서는, 비록 형식성의 높낮이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평상적인 친근체 대화에서는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대화가 의미협상이라는 사실과, 의미협상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 즉 정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듣는 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말차례 점검으로 완성이 좌절되거나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때로는 말하는 이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모두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일부만 말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의도를 파악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문적 불완전성은 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으며, 대화글에서는 줄임표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줄임표 등의 사용은 실제말화와 관계없는 편집자적 삽입일 뿐이다.

구문적 불완전성은 언어의 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구문적으로 불완전할 때, 듣는 이가 나머지 부분의 의미를 추론하기 때문이다. 이 추론은 물론 상호적이어서 대개는 말하는 이가 함축한 바를 추론하게 된다. 그러나 이 함축이 아닌 다른 내용들이 화용적으로 추론되기도 한다. 특히 말에서는 단순접속을 많이 사용하는데, 단순접속어가 다양한 의미를 획득

하는 과정은 거의 전적으로 말에서 상세하게 표시되지 않은 명제간의 관계성이 화용적으로 추론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범용어미들이 종결어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현상은 입말, 즉 구어에서 더욱 심한데 (권재일 2004) 이것도 구문적인 불완전성이 문법변화를 유발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현상으로 ‘-거든, -니까, -면서’ 등과 같은 접속어미들이 다양한 의미를 가진 종결어미로 변화하는 과정들도 자주 나타나는데 (이현희 1987, Sohn 1996, Lee & Park 1999, Rhee 2002, 정연희 2002 등 다수) 이러한 변화도 대화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듣는 이의 화용적 추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Rhee 2002). 또한 화용적 추론은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인지적인 책략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범언어적으로 공통점을 보임으로서 문법화의 채널을 보여주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구문적으로 불완전한 언어형태들은 주변의 핵심적이고 의사소통상 중요한 언어형태에 종속적으로 인식됨으로써 이에 관련된 단어나 형태소들의 문법범주가 부차적인 범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문법화 현상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동일한 형태가 어휘적 범주와 문법적 범주로 양분됨으로써 분화 (divergence)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적인 언어형태와 부차적인 언어형태들 간의 결합성이 증대되어 구조적인 합류가 일어나게 된다. 이 동일한 현상은 통합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통사적인 요소들이 형태론적 요소로, 또한 이것이 다시 음운적 요소로 변화하게 된다. 또한 이처럼 변화를 겪게 되는 언어형태는 계열적 유동성이 감소되어 사용이 의무화되는 전형적인 문법화의 특질을 띠게 된다.

3.3.4 구조적 특성

구조적인 특성으로 보아 말과 글에서 가장 현저한 차이는 문법성, 즉 규범의 적용에 있어서 엄격함의 정도 차이일 것이다. 말은 현장적 특징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규범이 무시되거나 규범의 적용이 느슨하여 오류가 많이 발생하지만, 글은 최종적으로 쓰는 일이 완성되기 전까지 천천히 문법적 규범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용정도가 훨씬 더 엄격하여 오류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심지어는 대화글을 적는 데 있어서도 실제 대화와는 다른 어휘, 문법형태소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섬세한 차이를 보이는 어휘나 문법형태

소들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문법화론에서는 이처럼 ‘문법적 규범’을 지키지 않는 발화들이 사실상 언어의 변화 또는 변이를 나타내 주는 귀중한 단서로 본다. 예를 들어, 명사와 조사의 결합형태이던 ‘밖에’가 차츰 이차적인 조사적 기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뺨에’처럼 발음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승윤 1994,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말의 특성에 주목하면서 전사된 자료들에서도 ‘밖에’로 표기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음운적 변화 현상은 이미 어원어로부터 문법소로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중요한 음성적 신호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글 또는 문어에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어휘의 선정에 있어서도 글말에서는 이른바 “표준어”를 선호하면서 방언 자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방언 자료는 언어의 변화에 있어서 과거 어느 시점에서의 변화의 진행이 지역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현재에 와서는 공식적인 변이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볼 때 변화와 변이를 연결해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기갑 2003, 최전승 2004의 여러 자료 참조). 이처럼 방언자료는 범시적인 관점에서 언어를 분석하는 문법화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글말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이러한 통시적 추적 단서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말에서는 사용어휘의 개념적 난이도가 낮아 의미적 일반성이 높은 소수의 단어군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말에서 사용되는 전체 어휘의 70%에 해당하는 어휘가 약 700개 정도에 머무른다는 연구 (Willis 1990: vi)와 사용빈도에 따라 어휘목록을 분류한 바 있는 초기 연구들 (West 1953, Thorndike & Lorge 1944)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특히 문법화에 있어서는 고빈도 항목이 문법화에 참여하게 되며 (Heine 1994, 이성하 2006[1998]), 고빈도 항목은 의미상 일반적이며 (Bybee 외 1994), 형태, 음운적으로도 단순하여 (Zipf 1935) 자주 사용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맥락의 개념적 난이도에 따라 사용되는 어휘의 개념적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Rohdenburg (1996)의 복잡성 원리 (complexity principle)는, 일반적으로 말보다는 글의 개념적 난이도가 높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의미적 일반성이 높은, 개념적 난이도가 낮은 어휘들이 말에서 많이 사용되고 이들 어휘는 대화상의 의미협상 대상이 됨으로써 더 많은 의미변화와 구조적 재분석을 겪게 될 기회가 많아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문법화과정을 겪

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다.

글이 가지는 높은 직시성 또한 문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표적으로 영어의 *that*, 독일어의 *daß*, 고대 아르메니아어의 *ays/ayd/ayn* 등과 같은 지시사들이 접속사나 관사로 발전한 예들에서 잘 알 수 있다. 즉 지시하는 기능은 지시대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활발한 추론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추론과정이 주관화 (subjectification; Traugott 1982, 1988, Traugott & König 1991)나 상호주관화 (intersubjectification; Traugott & Dasher 2002)을 통해 문법적인 항목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다.

4. 맺는 말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입말과 글말, 특히 말과 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말이 가지는 특성들이 문법화의 연구에 있어서 어떤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는지 논의하였다. 특히 말은 매체물리적 특성이나, 현장적 특성, 구문적 특성, 구조적 특성 등 네 가지 측면에서 현저하게 글과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특징들이 역동적인 언어변화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법화에 매우 중요한 특징들임을 살펴보았다.

특히 언어변화의 견인 동력은 의미협상에 관여하는 다양한 인지기제인데 이 인지기제들은 주어진 언어형식의 음운, 형태, 통사적 특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특히 음운적 현저성이 낮은 부분에 대하여는 형태통사적인 재분석이 활발하게 일어나 새로운 문법범주를 형성하기도 하며, 의미협상의 대상이 되는 언어형식은 함축과 화용적 추론을 통해 새로운 의미추가 현상이 일어남을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글과는 달리 말에서는 담화표지들의 사용이 활발하여 문장의 단위를 넘어서서 담화를 구성하고 이들을 조직화해주며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를 반영해주는 다양한 담화표지들이 생성된다는 것과, 이들의 생성은 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음을 아울러 살펴보았다. 또한 말에서는 어휘적 빈도편중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빈도는 해당 언어형태가 의미협상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게 되어 의미가 일반화되고 그 적용범위가 넓어지며 구체적인 의미가 점점 추상적인, 문법적인 의미로 이전됨

으로서 문법화가 일어나게 되는 순환적인 환류현상이 있음을 보았다.

앞으로 문법화와 같은 범시적 접근법의 언어이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입말, 즉 구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어야 하며, 특히 공시적인 분포의 다양성을 통해 통시를 재구해낼 수 있도록 방언의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고, 입말 자료들을 전사하여 말뭉치화하는 일에서 실제 발화, 즉 ‘말’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기록 속에서도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현정. 2001. 「대화의 기법: 이론과 실제」(개정판). 서울: 경진문화사.
- 권재일. 2004. 구어와 구어 문법의 성격. 언어과학회 2004년 하계 전국 학술 발표대회 특강 발표논문. 3-31. 언어과학회.
- 김규현. 2000. Collaborative completion as social action: Managing intersubjectivity and negotiating alignment. 2002년도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23-143.
- 박승윤. 1994. 문법화 현상 - 국어와 영어에서의 재범주화. 「인문과학」 24, 101-113.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박승윤. 1997. ‘밖에’의 문법화 현상. 「언어」 22.1, 57-70.
- 이기갑. 2003. 「국어 방언 문법」. 서울: 태학사.
- 이성하. 2006[1998].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이현희. 1987.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한국문화」 15, 57-82.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 정연희. 2002. 한국어 연결어미의 문법화. 박사학위 논문. 한국의국어대학교.
- 최전승. 2004. 「한국어 방언의 공시적 구조와 통시적 변화」. 서울: 역락.
- Barlow, Michael, and Suzanne Kemmer (eds.) 2000. *Usage-Based Models of Language*. Stanford: CSLI Publications.
- Birdwhistell, Ray L. 1952. *Introduction to Kinesics: An Annotation System for Analysis of Body Motion and Gesture*. Washington: Foreign Service Institute.
- Bybee, Joan L.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 John Benjamins.
- Bybee, Joan L., & Paul J. Hopper (eds.) 2001, *Frequency and Emergence of Language Structure*. Amsterdam: John Benjamins.

- Bybee, Joan L., Revere Perkins, and William Pagliuca.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omsky, Noam.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The MIT Press.
- Croft, William. 2000. *Explaining Language Change: An Evolutionary Approach*. Harlow: Longman.
- Givón, Talmy. 1979a. *On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San Francisco, & London: Academic Press.
- Givón, Talmy. 1979b. From Discourse to Syntax: Grammar as a Processing Strategy. Givón, Talmy (ed). *Discourse and Syntax*, 81-112. New York: Academic Press.
- Heine, Bernd. 1994. Some Principles of Grammaticalization. Handout for 1992 Stanford/Berkeley Grammaticalization Workshop.
- Heine, Bernd. 1997. *Cognitive Foundations of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eine, Bernd, Ulrike Claudi, & Friederike Hünemeyer. 1991.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pper, Paul J. 1979. Aspect and Foregrounding in Discourse. Givón, Talmy (ed). *Discourse and Syntax*. *Syntax and Semantics* 12, 213-241. New York: Academic.
- Hopper, Paul J. and Elizabeth C. Traugott. 2003[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llerman, Susan. 1992. "I see what you mean": The Role of Kinesic Behavior in Listening, and Implications for Foreign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Applied Linguistics* 13, 239-258.
- Kurylowicz, Jerzy. 1975[1965]. The Evolution of Grammatical Categories. Coseriu, Eugenio (ed). 1975. *Esquisses Linguistiques II*. 38-54. Munich: Fink.
- Langacker, Ronald W.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1: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onald W. 1988. A Usage-based Model. Rudzka-Ostyn, Brygida (ed). *Topics in Cognitive Linguistics* (Current Issues in Linguistic Theory 50),

127-61. Amsterdam: Benjamins.

- Langacker, Ronald W. 2000. A dynamic usage-based model. Barlow, Michael and Suzanne Kemmer (eds). *Usage-Based Models of Language*, 1-63. Stanford: CSLI Publications.
- Lee, Hyo Sang and Yong-Yae Park. 1999. Grammaticalization of the Korean connective *nunte/(u)nte*: A Case of Grammaticalization of Figure-Ground Relation. Paper presented at New Reflections on Grammaticalization Conference (NRG-I), June 16-19, 1999. Potsdam, Germany.
- Lehmann, Christian. 1995[1982]. *Thoughts on Grammaticalization*. Newcastle: LINCOM Europa.
- Lichtenberk, 1991. Semantic Change and Heterosemy in Grammaticalization. *Language* 67.3: 475-509.
- Lindfors, Anna-Lena. 2003. The *ku*-marker in Swahili. ms. Uppsala Universitet. Available on the Internet (http://www.lingfil.uu.se/ling/semfiler/The_ku_marker_in_Swahili.pdf)
- Panagl, 1987. Productivity and Diachronic Change in Morphology. Dressler, Wolfgang U., Willi Mayerthaler, Oswald Panagl, and Wolfgang Ullrich Wurzel (eds). *Leitmotifs in Natural Morphology*, 127-149. Amsterdam: John Benjamins.
- Pierrehumbert, Janet. 2001. Exemplar Dynamics: Word Frequency, Lenition and Contrast. Bybee, Joan L. and Paul Hopper (eds). *Frequency and the Emergence of Linguistic Structure*, 137-157. Amsterdam: John Benjamins.
- Rhee, Seongha. 2002. From Silence to Grammar: Grammaticalization of Ellipsis in Korean. Paper presented at New Reflections on Grammaticalization II Conference (NRG-II), April 3-6, 2002. Amsterdam, The Netherlands.
- Rohdenburg, Günther. 1996. Cognitive Complexity and Increased Grammatical Explicitness in English. *Cognitive Linguistics* 7.2, 149-182.
- Saussure, Ferdinand de. 1915.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Payot.
- Sohn, Sung-Ock. 1996. On the Development of Sentence-Final Particles in Korean. Akatsuka, N., S. Iwasaki, and S. Strauss. (eds). *Japanese/Korean Linguistics* 5, 219-234. Stanford: CSLI Publications.
- Thorndike, Edward L. and Irving Lorge. 1944. *The Teacher's Word Book of 30,000 Words*.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Traugott, Elizabeth Closs. 1982. From Propositional to Textual and Expressive Meanings: Some Semantic-Pragmatic Aspects of Grammaticalization. Lehmann, Winfred P. and Yakov Malkiel (eds). *Perspectives in Historical Linguistics*, 245-272. Amsterdam: John Benjamins.
- Traugott, Elizabeth Closs. 1988. Pragmatic Strengthening and Grammaticalization.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14, 406-416.
- Traugott, Elizabeth Closs and Richard Dasher. 2002. *Regularity in Semantic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augott, Elizabeth Closs and Ekkehardt König. 1991. The Semantics-Pragmatics of Grammaticalization Revisited. Traugott, Elizabeth Closs and Bernd Heine (eds).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2 vols. Vol. 1, 189-218. Amsterdam: John Benjamins.
- West, Michael. 1953. *A General Service List of English Words*. London: Longman.
- Willis, Jane D. 1990. *The Lexical Syllabus*. London: Collins COBUILD.
- Zipf, George Kingsley. 1935. *The Psycho-Biology of Language*. Cambridge: Houghton Mifflin.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영어학과
(011) 9001-0042, srhee@hufs.ac.kr

접수 (Received): 2008년 11월 일
수정필 (Revised version): 2008년 12월 일